

# 닭의 데이터 베이스(D/B) 사업 추진 방안

## 1. 데이터 베이스 도입 배경 및 필요성

1993년 UR 타결협상 이후 농산물의 개방체제가 확대되었고, DDA 협상 진행과 FTA 확대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방 확대 및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닭고기 수입량도 1997년 7월 완전개방 이후 5년이 채 안되어 전체 닭고기 소비량의 4분의 1 정도까지 확대되었다.

육계산업은 1991년부터 시작된 계열화사업의 확대로 규모화가 빨리 진전되었으나 생산능력이 현재 과잉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항상 수급 및 가격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고 2003년말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약하다.

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종계 사육수수와 입추실적 등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 그 동안 육감(感)에 의하여 닭을 입식함에 따라 가격 진폭이 심하여 많은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종계의 쿼터제 실시에 따라 과거와 같이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단기간의 생산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종계의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

국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비 절감 노력도 중요하지만 닭을 과잉 입식에 따른 양계농가와 계열업체의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국내 여건상 더욱 중요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데이터 베이스(D/B) 사업이다.

## 2. 종계 데이터 베이스 추진 방안

종계 Date-Base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우선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주 동안 전국의 종계장을 시·군과 생산자단체(농협,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합동으로 일제 현지조사를 하였다. 전국 종계장과 각 종계사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각 계사별로 고유번호가 등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디지털카메라로 농장전경, 농장출입구, 각 계사별 전경을 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종계장별 일반자료와 각 계사별 사육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기본 자료를 확보하였다.

등록된 종계장은 263개소이며 그 중에 육계용이 183개소(원종계 3, 종계 180), 산란계용이 16개소(원종계 1, 종계 15)이며 64개소는 휴업 및

〈표 1〉 품목별 종계사육 동향

품목		합 계	암	수	비고
육계	원종계	96,758수	88,313	8,445	
	종계	4,051,007	3,661,543	389,464	
토종닭		226,440	204,543	21,897	
검용계		8,234	7,345	889	품종 : 하코
오골계		1,511	1,421	90	
산란계	원종계	16,990	15,060	1,930	
	종계	692,837	634,367	58,470	
계		5,093,777	4,612,592	481,185	

폐업 등으로 종계를 사육하지 않고 있었으며, 종계사육 수수는 〈표 1〉과 같다.

2003년말부터 육용원종계 쿼터제 실시에 따라 결정된 9만4천수(D라인 기준)를 2005년도에도 같은 숫자를 적용하고 있고, 산란계 종계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며, 금년도 산란종계 쿼터도 조만간에 확정되어 육계 및 산란계가 모두 쿼터제가 실시되어 국내 양계산업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돼, 종계 D/B화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개 육용원종계 업체(삼화육종, 한국원종, 하림)는 종계(PS)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종계업을 등록한 농가에 한하여 분양하고 그 결과를 매주 데이터 베이스를 총괄하는 대한양계협회에 통보하며, 대한양계협회는 자료를 입력하고 종계를 분양받은 종계농가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종계사에 실제 입식여부를 확인하여 무등록 종계농가에 유출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유출한 농가가 확인되면 그 농가에 대

하여는 다음 종계를 분양하는 때에 원종계 업체에서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무허가 종계농가 종계를 받지 못할 것이며, 무허가로 종계를 사육하는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종계업 등록을 해야 할 것이다.

종계장에서 도태되는 일부 종계노계가 도계장으로 출하되지 않고 다른 농장에 유출되어 일반계사에서 재 사육되는 등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 3개 원종개 회사에서는 종계를 분양하는 때에 기존에 사육한 종계가 도계장에 출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닭고기의 수급동향, 전망 및 예측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8월 4일에 개정하여 닭의 도계실적을 삼계, 육계, 검용종, 산란노계, 산란종계, 육계종계 6개로 세분화하여 종계도계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4년 품목별 도계실적은 〈표 2〉와 같으며, 월별실적은 〈표 3〉과 같다.

종계사용 기한을 초과(육용은 16개월, 산란용

은 18개월)하여 사육한 종계농가도 파악이 가능하며, 작년에 조사한 종계농가 중에서도 사육기한이 초과한 육용종계 농가가 상당히 많았으며(표 4), 앞으로 종계 사용기한을 지난 농가와 강제환우를 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종계업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여러가지 제제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또한 대한양계협회에서는 당초 입식한 계사에

종계가 사육되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종계장에 유출여부, 재해 및 질병에 의한 폐사수, 사용기한이 초과한 종계의 도계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료를 입력, 매주 모든 농가에게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종계 Date-Base사업의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빠른 시일 내에 Date-Bas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며, 종계농가별

〈표 2〉 2004년도 닭의 품목별 도계실적 현황

(단위: 천수, %)

삼계	육계	검용종	산란노계	종 계		계
				산란용	육용	
77,011	403,366	4,576	12,063	369	2,386	499,771
(15.4)	(80.7)	(0.9)	(2.4)	(0.1)	(0.5)	(100.0)

〈표 3〉 2004년도 품목별 도계실적

(단위: 천수)

월별	2003년 (A)	2004년 실적							비율 (B/A)
		육계	삼계	산란노계	육용종계	산란종계	검용종	계(B)	
1월	37,077	29,815	3,439	801	131	18	136	34,340	93%
2월	33,245	24,220	2,674	461	298	87	226	27,966	84
3월	34,583	24,503	2,973	841	38	59	292	28,706	83
4월	39,276	29,592	3,895	1,204	84	41	299	35,115	89
5월	43,425	34,508	8,495	1,162	90	38	377	44,670	103
6월	50,469	38,876	12,382	1,017	279	30	502	53,086	105
7월	64,014	44,172	16,629	889	392	47	989	63,118	99
8월	42,320	36,655	7,472	684	167	24	487	45,489	107
9월	35,196	32,939	4,461	772	291	6	345	38,814	110
10월	37,874	33,584	4,198	1,275	238	6	299	39,600	105
11월	36,791	34,950	4,943	1,708	239	7	283	42,130	115
12월	39,055	39,552	5,450	1,249	139	6	341	46,737	120
계	493,325	403,366	77,011	12,063	2,386	369	4,576	499,771	101
점유비율		80.7%	15.4	2.4	0.5	0.1	0.9	100	

비밀 사항은 유출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시스템을 만들어 Date-Base 실시에 따라 종계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다.

### 3. D/B와 사업의 확대 방안

종계 D/B화 사업만으로는 정확한 닭고기 수 급추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부화장에서의 부화실적과 접목이 되어야 완벽한 D/B화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종계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부화를 인정하고 있는 일명 백세미 알(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을 생산하는 농가가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부화장에서 부화되는 병아리 분양실적을 종계 D/B화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육용 원종계의 쿼터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백세미 농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적정 백세미가 사육되도록 쿼터제 등과 유사한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 질병문제 등으로 바람직하

〈표 4〉 주령별 사육 동향

(단위: 수)

주령	육계			산란계			토종닭		
	암	수	계	암	수	계	암	수	계
5~10	48,500	6,000	54,500	70,000	-	70,000	-	-	-
11~15	194,130	28,460	222,590	79,000	7,200	86,200	-	-	-
16~20	311,300	43,510	354,810	-	-	-	29,000	5,100	34,100
21~25	249,146	27,966	277,112	22,000	3,000	25,000	7,390	1,330	8,720
26~30	324,560	36,930	361,490	63,600	8,100	71,700	36,470	3,270	39,740
31~35	86,227	9,327	95,554	18,000	1,300	19,300	30,000	4,350	34,350
36~40	231,663	25,377	257,040	135,000	15,000	150,000	13,740	660	14,400
41~45	585,877	55,223	641,100	23,000	600	23,600	10,500	1,500	12,000
46~50	422,762	33,336	456,098	32,998	3,680	36,678	4,500	470	4,970
51~55	112,490	10,330	122,820	69,000	8,000	77,000	10,333	1,100	11,433
56~60	147,251	11,260	158,511	36,000	2,150	38,150	800	-	800
61~65	261,459	30,167	291,626	13,000	250	13,250	4,410	487	4,897
66~70	200,879	24,302	225,181	23,000	6,000	29,000	-	-	-
71~75	209,086	19,834	228,920	49,769	3,790	53,559	8,500	880	9,380
76~80	125,779	10,860	136,639	-	-	-	19,300	2,050	21,350
81~85	52,504	2,972	55,476	-	-	-	-	-	-
86주이상	109,910	11,740	121,650	-	-	-	26,100	1,100	27,200
계	3,673,523	387,594	4,061,117	634,367	59,070	693,437	201,043	22,297	223,340

\* 조사당시 주령을 2005. 1. 15일 기준으로 조정한 것이며 사용기한이 지난 주령의 도태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지 못한 백세미 산업이지만 이제는 15% 이상의 시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육수수를 조절할 수 있어야 삼계 및 육계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

앞으로 백세미 알을 생산하는 농가는 종계수준의 관리가 불가피하며 국내에서 질병발생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방역시설과 질병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토종닭 또는 재래닭 중 일부는 종계로 등록하지 않은 개체에서 생산함에 따라 토종닭의 수급 뿐 아니라 상품의 균일성 문제로 인하여 앞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토종닭 산업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계통도 없이 단지 잡종(F1)이라도 유색계를 모두 토종닭으로 유통하는 것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토종닭 또는 재래닭을 옛날 고유의 우리 닭으로 신뢰를 가지고 구매하는데, 잡종에서 생산된 유색계도 토종닭으로 유통된다는 것을 알면 토종닭의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토종닭 산업의 발전과 수급안정을 위해 종계에서 생산된 실용계를 사육하는 것이 의무이며, 국가 및 연구기관 등에서는 한국 사람의 입맛에 가장 맞는 토종닭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4. 맺는말

종계 D/B화 사업은 가금수급위원회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양계분야의 의무자조금 제도가 정착되면 자조금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하며, 종계 D/B화 사업은 결국 양계농가 및 계열업체

가 운영하는 사업임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하나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구성원 모두의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고, 현재의 어려움과 손해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처럼 현재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 또 “나 혼자만 괜찮겠지”하는 의식을 버리고 국내 양계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양계인이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금년은 우리가 주인공인 닭의 해이다. 어두운 세상을 여는 닭처럼 금년에는 국내 양계산업의 어두운 부분을 도려내고 거기에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게 이식하는 것이 양계인의 책무이다.

종계 D/B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무엇보다도 농가, 계열화업체, 부화장, 도계장 등 관련 산업 종사자 모두가 정확한 자료제공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런 협조에서 만들어진 D/B화 자료는 양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효율적인 종계 D/B화 사업 위한 좋은 고견을 보내주시면(전화번호 02-500-1907, E-mail : bicho@maf.go.kr)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유년을 맞아 모든 양계인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알부자 되세요! C



조병임 사무관  
농림부 축산경영과